제주 이방익 표류담 '남유록' 담긴 고문헌

이방익 삼촌 후손 이태석씨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기증 '성주이씨세적' 등 90여 점

김병립 전 시장은 '화암시집' 일제 때 문사 신홍석의 시문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공

18세기 조선시대에 표류민으로 대만과 중국 땅을 밟았던 제주인 이방익(李邦翼·1757~1801). 그의 표류 관련 기록인 '남유록(南遊錄)'이 수록된 고문헌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기증됐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이방익의 삼촌인 이광수(李光秀·생몰년 미상)의 7대손인 이태석(93) 씨가 이방익 집안 관련 자료 90여 점을 최근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방익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출신 무관으로, 1796년 대만으로 표류했다가 9개월 만에 돌아온 인물이다. 그는 대만 팽호도에 표착한 뒤 대만부로 이송됐으며 복건성, 절강성(항주·소주), 강소성, 산동성, 북경을 거쳐 1797년 조선으로 송환됐다.

당시 정조의 명을 받은 연암 박지원(朴趾源·1737~1805)이 이방익을 만나 표류 내용을 정리해 '남유록'을 남겼다. 이번에 기증된 '성주이씨세적(星州李氏世蹟)'에 이 '남유록'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방익의 조부 이정무(李廷茂·1701~?)가 쓴 제주 가사 '달고사(達告辭)'가 실린 고문헌 '이씨세계행장(李氏世繼行狀)'도 함께 기증됐다. 달고사는 이정무가 영조 승하 후 제주 사람들을 이끌고 왕릉 축조에 참여한 경험을 담은 국·한문 가사다.

또 무과 급제 증서인 '홍패', 관리 임명장인 '고신' 등 무반 가문이었던 이방익 집안의 면모를 보여주는 자료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 중 '책봉경용호방(冊封慶龍虎榜)'은 1784년(정조 8년)에 문효세자의 책봉을 기념해 시행된 과거의 무과 급제자 명단으로, 이방익을 비롯한 여러 제주인의 이름을 싣고 있다. 이 밖에도 성주이씨 문중 관련 고문헌과 함께 근현대 문서, 목가구 등 집안 관련 자료들도 함께 기증했다.

이와더불어 박물관은 김병립 전 제주시장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제주 문사 화암 신홍석(愼鴻錫·1850~1920)의 시문이 담긴 '화암시집(禾庵詩集)'을 기증받았다. 신홍석은 제주시 화북동 출신으로 제주의 여러 선비들과 교유하며 후학을 가르쳐 온 인물로, '화암시집'은 그의 사후 시 일부와 행장을 수록해 펴낸 자료다.

기증자료들은 오는 4월까지 박물관 본관 내 기증전시 코너에 전시된다.

박물관 측은 "제주 역사·문화 분야 연구 및 전시 자산이 될 자료를 다수 기증받았다. 앞으로 연구와 전시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증자료들은 민속자연사박물관 부지 내에 건립 계획 중인 (가칭)제주역사관의 밑바탕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에릭 오가 들려주는 단편 애니 '오페라'

픽사 출신에 아카데미 후보 제주 전시… 감독과의 대화

에릭 오 레트로스펙티브. 하우스오브레퓨즈 제공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Pixar) 출신 에릭 오 감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제주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하우스오브레퓨즈'에서 오는 3월까지 열리는 미디어 체험 상설전 'O : 에릭 오 레트로스펙티브'이다.

한국계 에릭 오(본명 오수형) 감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픽사 애니메이터로 활동하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도리를 찾아서', '인사이드 아웃' 등 다수 대표작에 참여했다. 2021년에는 자신이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 '오페라'가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전시는 '오페라'를 중심으로 다수의 단편 애니메이션과 미디어 설치 작업을 통해 그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본다. 영상과 공간 사운드를 결합한 몰입형 전시 형식으로 구성됐다.

또 이달 31일과 다음달 1일 '에릭 오 감독과 감독과의 만남'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에릭 오는 이 자리에서 작품을 직접 해설하고 관객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사전 예약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하우스오브레퓨즈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문학 원작인 영화로 보는 '역사의 조각'

서귀포도서관 내달 운영

서귀포도서관은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영화로 보는 역사의 조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화와 역사를 매개로 청소년들의 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현택훈 작가의 지도로 문학작품이 원작인 영화 감상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역사적 배경 탐구가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도서관 2층 평생교육실에서 진행되며, 예비 중학생 1~3학년 15명이 대상이다. 모집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제주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진행된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살레장 재해석… 전통가구에 입힌 '모던'

공예가 양웅걸 개인전 내달 8일까지 벵디왓

양웅걸의 '살레장'

제주 공예작가 양웅걸의 개인전 '살레장, 그리고 모던'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내 갤러리 벵디왓에서 열리고 있다.

양웅걸 작가는 목재를 중심으로 제주의 지역성과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업을 선보여 온 공예가다. 제주의 전통가구와 소품을 출발점으로 현대 가구 디자인으로 확장해 가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작업으로 만든 살레, 사방탁자, 소반, 테이블, 의자 등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다음달 8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도내 문화예술가들의 창작·전시 활동을 지원하고 관람객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이 추진하는 올해 지역문화 상생·협력 전시 사업의 첫 번째 전시로, 올해 이를 포함해 13회의 전시가 이어진다. 박소정기자

가톨릭제주교구 사진가회 17~22일 스물아홉 회원전

가톨릭제주교구 사진가회는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스물아홉 번째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하느님과 시선을 맞춰온 여정'이라는 주제로 회원 25명이 제주 고유의 아름다움과 해외 성지의 경건함을 담아낸 사진 작품 65점을 선보인다. 강우일 주교를 비롯한 여러 신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김종현 회장은 "이번 전시는 제주의 아름다움 속에 깃든 가톨릭의 신비를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기록한 신앙의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겨울방학 책·이야기 보따리 제주도서관 체험 독서 운영

제주도서관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 '겨울방학 책 보따리 & 이야기 보따리'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초등학생 10~12명 내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가 어린이들은 제주해녀를 주제로 한 그림책 '물개할망'과 제주어를 다룬 '색 나라와 뚝딱' 등을 함께 읽고 책 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체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김채현기자

제주 국제학교 조수안군 미국 카네기홀 무대 선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NLCS Jeju) 재학생인 조수안(사진) 군이 카네기홀 무대에 선다.

14일 한국 국제전문음악교사협회(IAPMT)에 따르면 조 군은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입상해 이달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리는 'IAPMT 위너스 콘서트'에 공식 연주자로 초청됐다.

이번 위너스 콘서트에는 각 국에서 선발된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조 군은 이 자리에서 아람 하차투리안의 곡을 연주한다.

만 9세인 조 군은 6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학생 연주자다. 조 군은 "제주에서 연습하던 피아노로 세계적인 무대에 설 수 있어 설레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소정기자